

# 신한 이어 KB도 2%대 금리...가계대출 급증세 불붙나

### 시중 4대 은행 주담대 대출 금리 3년만에 2%대 등장 5대은행 올해 가계대출 2.2% ↑ ...하반기 대출문턱 ↑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최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내려앉고 있다. 약 3년 전 금리 수준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5억원을 빌렸을 때 작년 말보다 연 원리금 상환액이 수백만원 줄어드는 상태다. 따라서 자칫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은 끝나고 차입 투자 열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20일 만에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미 4조원 이상 또 불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이다. 약 한 달 보름 전 5월 31일(연 3.480~5.868%)과 비교해 상단이 0.423%포인트(p), 하단이 0.540%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895%에서 3.454%로 0.441%p 급락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분기 1년)도 연 4.330~6.330%에서 4.160~6.160%로 상·하단이 0.170p

씩 떨어졌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의 낙폭(-0.172%p)과 거의 같다. 특히 2%대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약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금융 환경이다. 앞서 19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를 기록했고, 20일 2.95%를 거쳐 21일 2.94%까지 더 떨어졌다. 이번 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금리+변동금리) 금리와 주기형 고정금리도 2%대(2.99%)에 진입했다. 2%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내부 시계열 통계에서 각 2021년 8월 말(2.92%) 이후 약 2년 10개월만, 2021년

3월 4일(2.96%)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3.740~6.732%) 역시 상단과 하단이 한 달 보름 전보다 각 0.110%p, 0.106%p 떨어졌다. 구조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예금 금리 등을 거쳐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대출 금리 하락 폭은 더 크고, 그만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뚜렷하게 줄었다. 금리 하락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주택 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밀 수 있다는 점은 전체 경제·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걱정거리다. 20일

현재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3632억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원)보다 4조4054억원 더 늘었다. 4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일 뿐 아니라, 이달 들어 20일 만에 이미 4월 전체 증가 폭(+4조4346억원)에 육박하고 5월(+5조2278억원)과 차이가 8000억원에 불과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20일까지 각 3조6802억원, 7330억원 불었다. 금융 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 회의 등에서 주요 은행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당부했는데, 지금까지 5대 은행의 증가율은 2.2%(지난해 말 692조4094억원→707조3632억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 청년고용 양과 질 다 흔들린다...지난달 상용직 19만명 급감

### 최근 10년 내 최대폭 하락 전체 상용직 증가폭도 둔화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청년 고용'이 지난달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상용직이 20만명 가까이 급감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

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총 23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5000명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마이크로데이터가 작성된 201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청년층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불과 작년 5월(-1만명)보다 감소 폭은 눈에 띄게 확대됐다. 5월 기준 2020년 224만9000명이던 청년층 상용직은 2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55만8000명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254만8000명으로 감소한 이

후 올해까지 2년째 줄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청년층의 상용직 감소세가 가팔랐다. 60세 이상에서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3000명, 6만4000명 증가했다. 40대는 9만1000명 줄었는데 청년층 감소 폭의 절반 수준이었다. 청년층이 전체 상용근로자 수도 끌어내렸다. 지난달 상용근로자 수는 1638만5000명으로 나타나 작년 동월보다 7만5000명 늘어난 데 그쳤다. /연합뉴스



##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취약계층 3가구 도배·장판 교체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취약·소외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광주본부, NH네트웍스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화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시지회가 주관하고 광주유통센터, 광주공판장이 후원했다. 박내춘 본부장, 한재규 노조위원장 등 협회 임직원 10여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

배와 장판, LED 등 교체를 실시했다. 이날 광주유통센터에서 쌀과 라면, 세제, 화장지 등 생필품, 광주공판장에서 수박, 감자, 양파, 대파 등 11가지 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세트를 전달했다. 박내춘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소외계층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은행 대구서 iM뱅크와 달빛동맹 봉사활동

### '맘키트'·'사랑의 쿠키' 만들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지난 20일 대구시를 찾아 영호남 상생발전 및 화합을 위한 '달빛동맹 봉사활동'을 펼쳤다. 달빛동맹 봉사활동은 매년 지역 간 상호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맺은 '달빛동맹 교류'의 일환으로 광주은행과 iM뱅크(구 대구은행)가 지난 2015년 시작해 7번째를 맞았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했다. <사진> 이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맘키트' 제작 ▲'사랑의 쿠키' 제작 및 포장 ▲꿀벌 살리기를 위한 친환경 꽃씨 비행기 날리기 ▲등산 안내 리본 달기 등 양 기관의 협력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양 기관이 함께 제작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맘키트'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보건소에, 지역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쿠키'는 지역아동센터협



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달빛동맹 봉사활동은 호남과 영남 금융인들이 지역경제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대표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상의 지역기업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 권역별·산업별 밀착지원 강화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의 권역별 설명회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경제질서 변화 속에 새로운 활로를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재편 지원제도와 혜택, 우수 사례를 설명하는 자리다. 산업부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활용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권역별·산

업별 밀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대내적인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기업 체질 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선제적 사업 혁신을 위한 고민이 깊은 만큼, 이번 설명회가 사업 활로 모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 '행사·교육'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조사본부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산인공 서부지사·HD현대삼호 조선업 안전관리역량 강화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HD현대삼호와 지난 20일 조선업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여한 '조선업 특화 안전관리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교육은 공단 기업까지 플러스 훈련으로, HD현대삼호와 지사가 조선업 HRD 현안인 '외국인력의 현장안전 확보, 기량향상'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선업 중소기업 인재육성과 동반성장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의사소통 역량 제고 ▲조선업 현장 안전관리역량 강화 ▲조선업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등 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조선업 특화 기업훈련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능력개발전담주최' 기반 중소기업 HRD 컨설팅, 외국인력 훈련교보재 2개 국어 번역 지원, 외국인



력 안전능력평가결과와 공유, 협력사 맞춤형 현장교육지원을 위한 통역, 교육장소 지원 등이다. 박태훈 지사장은 "조선업이 소재한 영남, 해남 등 인구 소멸지역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아 HD현대삼호에만 현재 3400여명의 협력사 외국인력

이 근무하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지역 기업으로 해소를 위한 기업이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서 공단 기업훈련으로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기업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중소 제조기업 사후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해외 시장 분석·기술판매 전략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23일 '지역내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공동 사후관리서비스(SAMS)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주TP는 우수한 품질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의 SAM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에센솔루션, 공동연구개발기관인 디케이

(주), 티아이피인터내셔널(주)과 '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약 2년에 걸쳐 SAMS 플랫폼을 개발했다. SAMS 플랫폼 모델은 해외 시장분석과 전자·전자 제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 판매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AS 운영체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전자·전자 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제휴에 참여한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최적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 신뢰 확보와 함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비용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 김경집 광주TP 원장은 "SAMS 플랫폼이 광주 지역 공동브랜드 수요기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과 광주TP 해외Biz센터 연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작년 국내 1천대 기업 R&D 투자 72조5천억원

### 전년보다 8.7% ↑ ...삼성전자 33%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매출 감소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1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3 기업 R&D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1000대 기업의 작년 매출액은 총 1642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2.8% 감소했다.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도 R&D 투자를 늘리면서 1천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2022년 3.9%에서 2023년 4.4%로 높아졌다. 지난해 R&D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로, 총 R&D 투자액은 전년(20조9000억원)보다 14.4%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천대 기업 전체 투자의 32.9%를 차지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지난해 14.0%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3조7000억원·전년 대비 15.6% ↑), SK하이닉스(3조6000억원·

10.0% ↓), LG전자(3조3000억원·10.0% ↑), 삼성디스플레이(2조8000억원·12.0% ↑), 기아(2조2000억원·22.7% ↑) 등이 상위 5위에 들었다. 이어 LG디스플레이(1조9000억원), 현대모비스(1조6000억원), 삼성SDI(1조1000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1000억원)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작년 R&D 투자액 1조원을 넘긴 기업은 이들 10대 기업이 전부였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4	25	33	40	44	3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95,289,188	12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6,289,467	78
3	5개 숫자일치					1,432,022	3,06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7,313
5	3개 숫자일치					5,000	2,442,674